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 보인다

남녀비율 거의 절반 • 20대 연령층 제일 많아

새가족부는 올 상반기 동안(1월~6월) 등록된 새가족 444명(중,고등학생 제외) 중 남녀 성비율은 42 : 58로 비교적 균형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교회 기존 성도의 구성비와 유사한 것으로 건강한 가정이 등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 청년부 소속 등록교인이 전체의 25%를 차지하였고 중심 연령대가 40대 전반으로 포착된 것은 젊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또 하나의 자랑스런 소식

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습 또는 세례교인이 80%를 점하고 있는 것은 새가족중 상당수가 수평이동을 한 성도들로 분석되고 있어 한국교회의 풀어야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7월말 현재 새가족부 과정을 수료한 교인은 32%이고 현재 교육중인 자가 33%로 교육불참자가 35%나 된다고 했다. (3면 참조)

2001 바자회 개최

-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터 -

교회는 새예배당을 주셔서 입당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자 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 일정은 오는 9월19일(수)~21일(금)까지 3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본 교회당 1층과 지하1층, 교회 앞 공지 그리고 8층 만나홀 등을 바자회 장소로 이용케 된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고있는 바자

추진위원장(김태기 장로)은 이번 바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며 우리만의 행사가 아닌 교회와 이웃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이번 기회를 선용하여 많은 주민과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바자회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늘(2일-주일) 3부 예배 후 실행위원회와 교구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홍보 및 판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각 교구별로 배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하여 성공적인 바자회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목회자 세미나 봉사의 손길 요청

내일(3일-월)
제2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우리교회가 한국교회의 갱신을 기도하며 준비하여온 제2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내일 개강하여 10주간의 학사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10년간 빠짐없이 계속되어온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이제 한국교회의 갱신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수많은 교역자들이 교회의 갱신을 기도하며 모이는 뜨거운 현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봉사할 손길이 많이 부족하여 성도들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식당(조리 및 채료구입), 교재준비(편칭, 체본),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등록 및 접수, 테이프 및 서적 판매관리, 음료수 집대, 교재-유인물 배부, 청소-정리 등 제반의 부서에서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10주간의 아름다운 봉사로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눌 성도는 사무국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이모저모



- ①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 ② 치앙마이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 단기 선교팀의 승리의 영상보고
- ③ 8월 새가족 환영회 -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중 행사 계획

- 9. 1 (토) 새가족부 HomeComing Day
- 9. 2 (주) 대학부 헌신예배
- 9. 3 (월) 서울 성경대학, 목회자 세미나 개강
- 9. 4 (화) 서울 주부대학
- 9. 6 (목) 살롬경로대학
- 9. 9 (주) 전도위원회
- 9. 16(주) 교구위원회
- 9. 17(월) ~ 9. 21 (금) 장로회 총회
- 9. 19(수) ~ 9. 21 (금) 바자회
- 9. 23(주) 찬양위원회
- 9. 27 (목) 장로회 정체성위원회
- 9. 30 (주) 새가족 환영회

이번주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
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들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니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
지는 것이 나으리라(개역개정판 막 9:40~42)

for whoever is not against us is for us.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And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be thrown into the sea with a large millstone tied around his neck. (NIV Mk 9: 40-42)

이사야서 강해 불신자에 대한 책망

(이사야 50:1 - 3)



이중윤 목사

불신자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닌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스스로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온 때에도 일어 서지 않은 것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1. 인생에게 쫓아온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저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저들 가운데 넣어준 죄가 문제 된 것입니다(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1절)고 말씀하십니다. '어미'는 유대 나라, 너희 곧 자녀는 그 나라 백성 개인을 말합니다. 남편 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죄 없이 내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풍속에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증서를 주는 것은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 당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신 24:1). 그 여인은 그 증서를 가지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증서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법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렘 3:8-9).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혼증서를 주었다고 하였으나 남왕국 유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사 49:14-15). 빛 때문에 자식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출 21:7) 유대인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파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1절).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판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테의 파우스트에는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왕상 21:20), "우리가 울땀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롬 7:14).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므로 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2절)는 말씀은 유대 민족의 불신앙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에 능력을 발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구원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3. 하나님의 권능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화해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에 권태를 느끼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셨고 보존하시며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더러워진 자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과 하나님을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듣지 아니하고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섭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듣고 행치 아니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노라"(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내리신 흑암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게 된 것처럼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어둠도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상복으로 온몸을 가리듯 천지를 어둡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옮길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출 3:7, 17).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혼하신 것도 하나님이 파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방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대하 36:11 - 21).

본문에는 하나님과 교회(유대 나라)가 다음과 같이 부부관계로 비유되었습니다.

①교회는 아내처럼 하나님께 정절을 지켜야 보호를 받습니다(계 14:4).

②교회는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③교회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노를 산 교회는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밭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되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므로 이스라엘처럼 불신앙에 빠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의 경고와 불신앙적 응답

하나님께서서는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나"(2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교정하기 위해 출애굽 당시의 일을 회상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 홍해가 말라 육로가 생겨 이스라엘이 건너게 된 일(출 14:21)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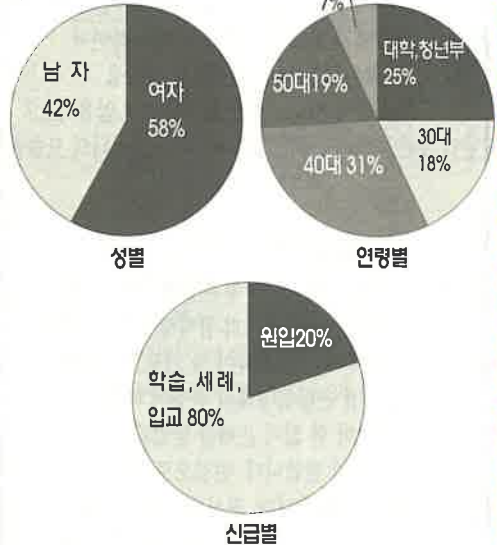
2절의 말씀이 미래형으로 된 것으로 과거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2001년 상반기 새가족 정착 현황

목적: 대치동 예배당시대를 맞아 6개월간 등록된 교인 444명(중,고등부 제외)의 정착현황을 7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 점검하여 향후 새가족 프로그램의 개선과 새가족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함이다.

1)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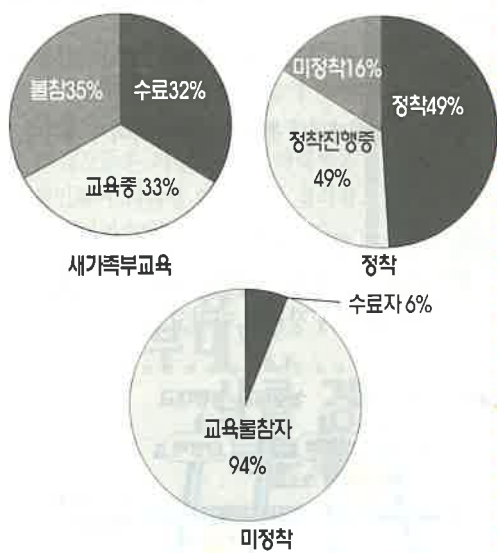


- 남녀간 성비가 42:58로 비교적 균형을 보인 것은 본 교회 특유의 기존교인 구성비와 유사하며 부부 또는 가족단위의 등록이 많았던 점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대학, 청년부소속의 등록 교인이 25%를 차지한 점과 중심 연령대가 40대 전반으로 포착된 것은 <젊은 교회>로의 비전을 제시해 준다.

- 학습, 세례교인이 80%를 점하고 원입 교인의 상당수도 타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등록교인 대부분이 이적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양육 프로그램과 교회 운영에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새가족부 교육과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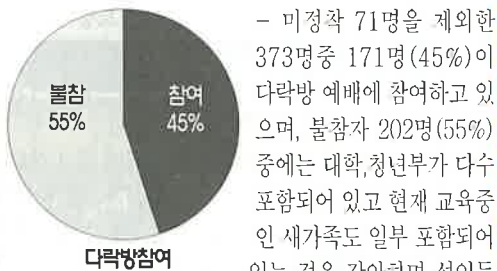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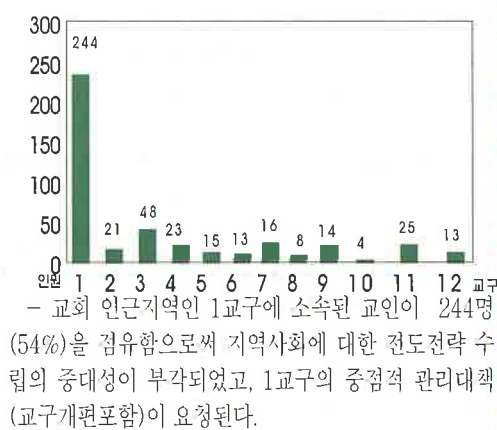
- 새가족부 교육은 12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7월말현재 본 과정을 수료한 교인은 140명(32%) 이고 현재 교육에 참가중인 새가족은 148명(33%)이며 35%가 처음부터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

타났다.

- 현재 등록 교인의 49%(217명)가 정착하여 공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35%가 새가족 교육에 참가중이거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정착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71명(16%)이 정착이 불가능하여 교회 출석을 포기하거나 타교회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착을 하지 못한 교인 71명중 67명이 처음부터 새가족부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되어 새가족 프로그램 참여여부가 정착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3) 교구 및 다락방



- 미정착 71명을 제외한 373명중 171명(45%)이 다락방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불참자 202명(55%) 중에는 대학, 청년부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현재 교육중인 새가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인들의 다락방 참여도는 기존교인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선교회, 전도회 및 성경공부반

각 선교회 및 전도회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새가족부 14명제외)

연령별	선교회(명)	전도회명	계
30대	빌립(25)	도르가(40)	65명
40대	안드레(27) 베드로(24)	루디아(52) 뵈뵈(35)	138명
50대	바울(24) 엘리아(14)	마리아(26) 에스터(22)	86명
60대 이상	모세(7) 아브라함(5)	안나(7) 사라(11)	30명
계	126명	193명	319명



- 선교회 전도회 소속의 등록교인이 319명중 134명(43%)이 소속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선교회나 전도회 임원들의 관심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인원과 참여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성경공부반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5) 봉사부서

- 미정착자 71명을 제외한 373명 중 78명이 현재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인원 217명의 약 33%가 봉사부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찬양대 봉사자가 48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교회학교 18명, 예배위원회 4명, 식당 4명, 그외 예배다부, 차량부, 70인 전도대 등의 한정된 부서에서 약간명이 봉사하고 있는데 교회 각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봉사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맺는말

새가족부가 우리교회에 처음 찾아온 새가족들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수료후에 그 관심과 사랑이 연결 되지 못하여 어느 수료자의 고백처럼 인큐베이터에서 갓나온 아이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료한 분들을 바로 기존부서로 보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가족 2부 형태의 성경공부를 통해 1년정도 경과시까지 완충지역에서 양육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경우에도 조기 정착자는 현행대로 봉사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또 다른 대안은 현재와 같이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이 기회에 새가족부 교사들의 질과 인원을 대폭 보강하여 수료 후에도 1년 정도 책임을 지고 교제와 양육을 지속케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일종의 제자 양육 형태든지 반창회 형태의 소그룹 모임 형태를 가지든지 교회의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일정기간의 검토를 거쳐, 평신도 사역의 모체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명한 사실은 다락방장, 선교회 및 전도회 회장단, 대학, 청년부 회장단, 성경공부 부장들의 헌신적 노력과 관심 없이는 어떠한 제도 보완과 매뉴얼 수정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 틀림없다.

이 자료가 훌륭한 조언과 협력의 시작이 되어 교회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치앙마이를 다녀와서...

김성실(청년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에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언제 복음 들고 산을 넘어볼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산을 넘고 바다 건너서 복음을 전하니 감사 할 따름입니다..가전 홍수와 풍토병으로 인한 걱정 어린 눈빛들이 있었지만 도착하니 어느 지체가 그러더군요 "내 알아봤지! 하나님은 늘 그러시더라 비 안 올 줄 알았어 수련회 가도 그렇잖아"~"라는 통에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있는 동안 내내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음을 강하게 느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로 하여금 중보기도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축복된 땅은 치앙마이 산지족중 후아이라이 라는 마을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일정이 바뀌어 가게된 곳이었지요. 그 곳의 환경은 그리 편한 곳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참으로 순수해 보이고 착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숭배를 하고 부처를 믿는 그런 곳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선 이미 그곳에 역사하시고 만지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회를 가졌던 지

녁은 비가 오려고 번개까지 쳤던 하늘이 희미한 별과 함께 비를 그치게 하였고, 그 마을 신들에게 제사한다고 하던 날에는 빼어난 있는 교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고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새로운 인사법을 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연신 하셨지만 너무나 귀한 분이셨습니다. 산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치앙마이에서 차로 4-5시간 걸리고 다시금 산골짜기로 가야 합니다. 이제, 오토바이가 생겨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게 되셨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찌 다니셨는지...또 어떻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는지..

공황에서 선교사님은 우셨습니다. 가슴에 무슨 일이 그리 많으신지 목사님을 붙잡고 우시고 장로님을 붙잡고 우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고,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더군요.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걸 감사하시며 기쁨으로 이기셨다는 선교사님..!이제 우리가 함께 하기 소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모약제일교회 담임교역자 안양욱 전도사

이번 전도행사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은혜의 연속이었다. 교인들에게 처음 전도행사에 대해 알렸을 때 그들은 매년 있는 주민잔치 정도로 생각했다.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잔치를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 한다고... '몸은 조금 힘들겠지만 끝난 뒤에는 좋은 일 했다는 뿌듯함 정도는 있으리라'라는 소박한(?) 기대를 가지면서...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서울교회 준비위원들이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전화들, 우리는 전화로 전해오는 그들의 준비모습에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아주 작은 것들까지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몇몇 교인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도 준비하는 모습들이 분주해졌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훈련되어져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나 또한 '주님이 서울교회를 빌어 모약제일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새 주 안에서 서울교회와 모약제일교회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3박 4일간의 기간중 우리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800여명, 그리고 그중 40여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심했다. 불모지에서의 놀라운 역사였다. 적극적인 전도, 그것이 이러한 역

사를 가능하게 한 것 같다. 5년이라는 기간동안 이 지역에 대해 교인들 스스로가 가지게 된 선입견과 편견들, 이것들은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었고 그만큼 우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한 전도대의 전도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었다. 적극적인 전도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 역시 구원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서울교회의 적극적 전도는 소강상태에 있던 사탄과의 영적 주도권 다툼에서 모약제일교회가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아주 귀한 도전이었다. 모약제일교회에 이러한 도전을 마련해준 서울교회에 전 교인을 대표해서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서울교회가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이 지역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 모약제일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기회로 물꼬를 튼 서울교회와의 교제가 연례행사로 그치는 교제가 아니라, 한몸에서 이루어지는 신진대사처럼 유기적인 교제로써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은빛 신앙대

원복순 권사 (2교구)

내 인생 여정의 끝자락!

천국문에 이르러 하나님 심판하실때에 어찌 무엇으로 하나님께 고하겠습니까?

덧 없이 흘러간 세월 나그네 되어

이제는 본향인 천국이 가까웠거늘

세상에 살면서 썩어질 곳에 낭비하면서

하나님 보좌에 인색했던 모습을

무엇으로 감싸 하나님앞에 보여드리지 않을까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허물많은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 할 수 있을런지요.

사랑의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 후손들은 예수다운 후손들이 되어야 하겠고

범사에 순종하며 주님의 참사랑을 알아가는

후손들이 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드립니다.

얼마전 은빛찬양대의 찬양이 마음에

와 닿아 한 없이 은혜를 받았습디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다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

눈물 어린 찬양이 우리 은빛찬양대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끝나는 그날!

우리는 계수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속에 계셔서 오고오는 후손들의

기억 속에 남는 기도의 어머니, 사랑의 할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여성 성령의 열매가 주령 주령 맺어지는

은빛찬양대원 되기를 오늘도 기도 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일(화) 로잔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6일(목) 연세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6일 밤과 7일에 제주도 기독교 연합회 집회를 인도한다.

■ 김유정 집사 (2교구) 9월4일 참치잡이 삼성점 개업

■ 제9차 김치세미나 봉사자 일동은 목회자 세미나 간식제공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류중관 집사 진선자 집사 (10교구) 김세재 집사 이운진권사 (4교구) 가정 -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세미나,성경대학,경로대학,주부대학을 위하여
2. 동북아로 파송된 홍의만 윤혜경 선교사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